



五倫行實圖

韓版

六

9
1439
6



1439
6



五倫行實圖卷第五目錄

朋友

樓護養呂

范張死友

張裔恤孤

道琮尋屍

吳郭相報

李勉還金

徐晦不負

查道傾囊

韓李更僕

純仁麥舟

侯可求鑿

附 師生

云敞自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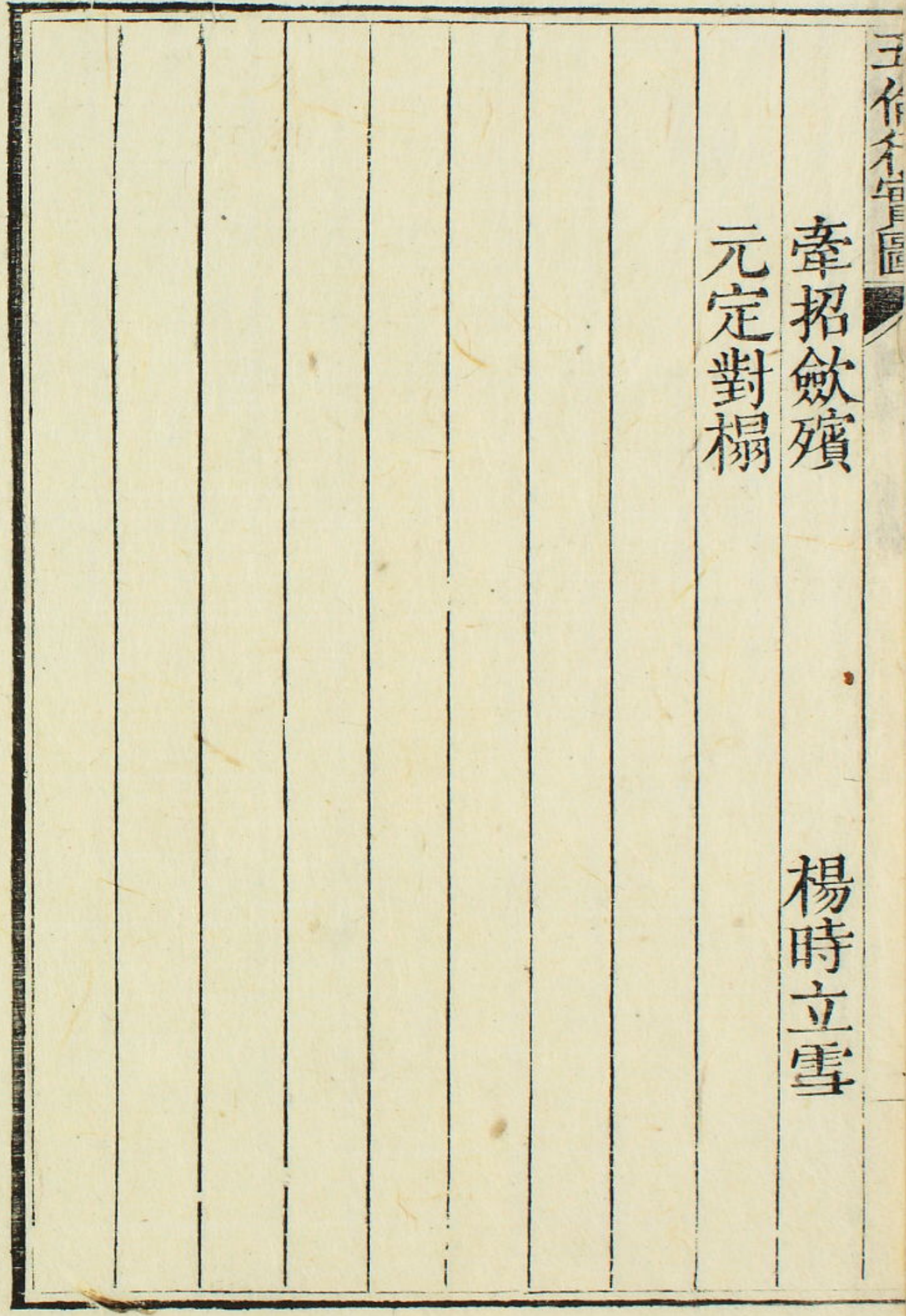
桓榮奔喪

牙在云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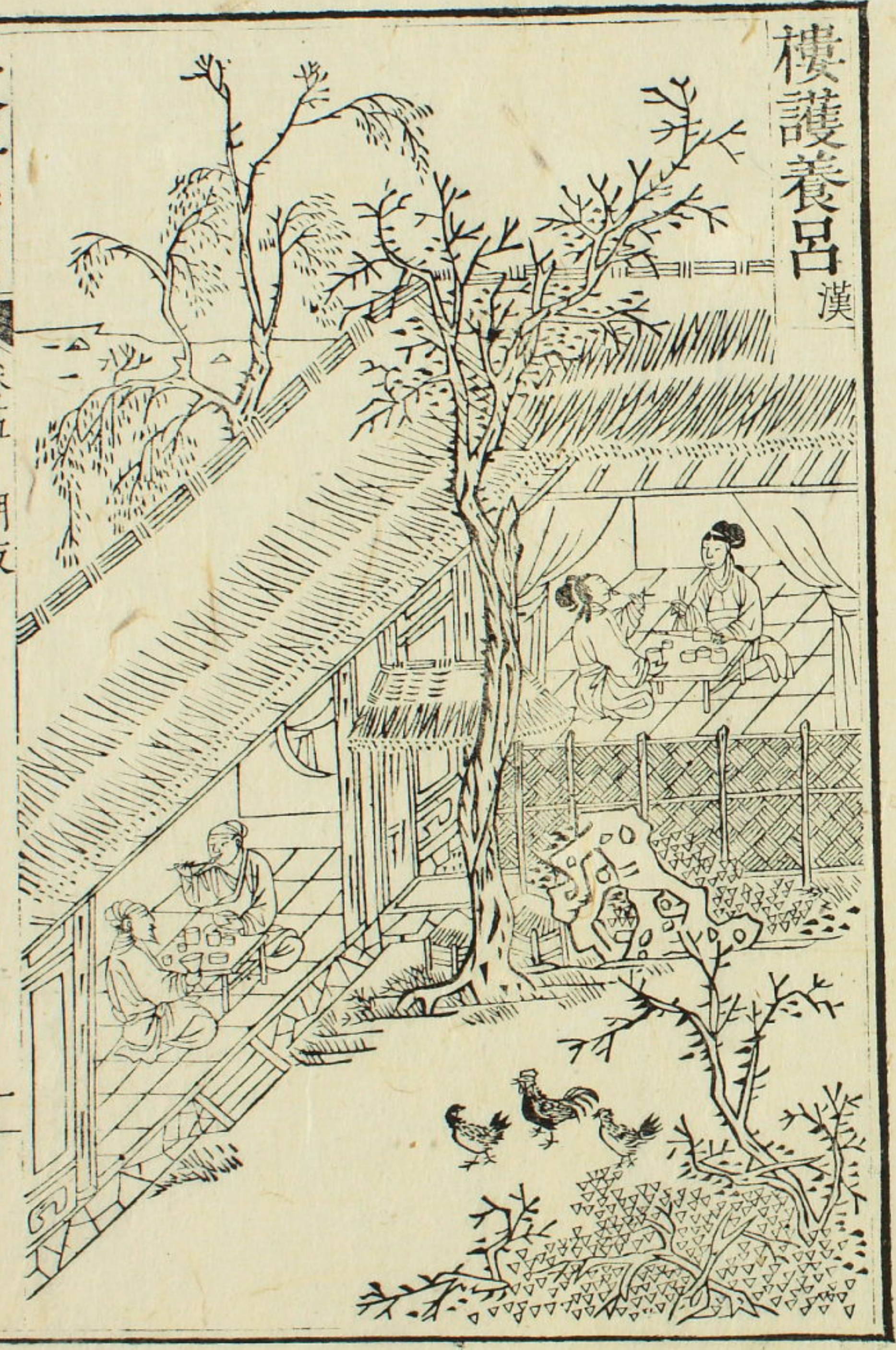
五命不室圖

牽招斂殯
元定對榻

楊時立雪



樓護養呂 漢



五命不室圖
卷五 朋友

樓護齊郡人有故人呂公無所歸護身與呂公妻與
呂嫗同食後護妻子頗厭呂公護流涕責妻子曰呂
公故舊窮老託身於我義所當奉遂養呂公以終身
詩故人投我為無歸義所當為不敢辭身勸呂公
妻勸嫗一盤麤糲當甘肥 久寓人情生厭斲樓
公垂涕責妻孥慙奉養終身世舊諠從前誓不
孤

누호노한나라제군사름이니벗녀공이갈디업
거늘누회녀공과호디밤먹으며누호의안히녀
공의안히와호디밤먹더니오랜후쳐지마장슬

희여호니누회올며쳐스를쉬지저닐오디녀공
은넷벗이라늘고궁박호여내게와의탁호니
디점호여야올호니라호고녀공을죽기스지디
점호니라

五倫行實圖
范張死友
漢



范式金鄉人字巨卿少遊太學與汝南張劭爲友劭字元伯二人並告歸鄉里式謂元伯曰後二年當過拜尊親乃共尅期日期將至元伯請設饌以候之母曰二年之別千里結言何相信之審耶對曰巨卿信士决不乖違母曰若然當醞酒至其日巨卿果至後元伯疾篤歎曰恨不見吾死友范巨卿尋卒式忽夢見元伯呼曰巨卿吾以某日死某時葬子未我忘豈能相及式便馳往赴之喪已發引既至壙而柩不肯進其母撫之曰元伯豈有望耶遂停柩移時乃見有素車白馬號哭而來母曰是必巨卿也巨卿既至叩

喪言曰行矣元伯死生異路永從此辭式因引柩於
是乃前式遂留止冢次爲脩墳樹而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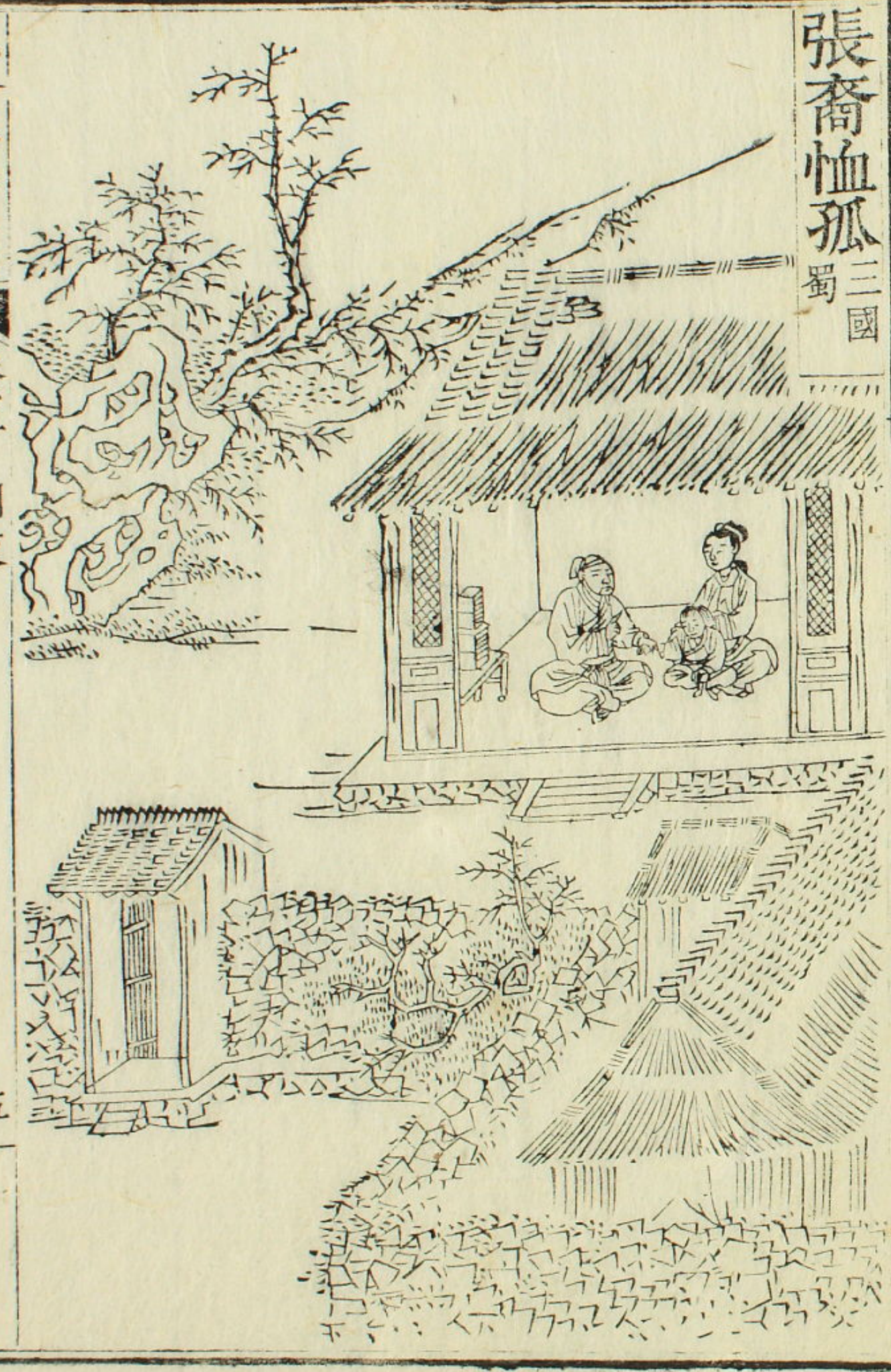
詩千里相期二載餘眼青堂上見華裾壽觴共進
浮春色始喜吾兒語不虛 白馬馳來是巨卿夢
中相感亦丁寧攀號永訣柩還進誠信應通地下
靈

범식은한나라금향사람이니주는거경이라져
머서태후에돈닐시량원백과스괴엇더니원백
으로더브러고향으로도라갈시식이원백드려
닐오디후투히만에그디모친을가셔되오리라

흥고괴약흥엇더니그날이갓가와오거늘원백
이어미게고흥여음식을초와다라훈디어미
닐오디두히니별에천리에셔닐은말을엇디미
드리오원백이곧오디거경은유신흔사람이라
반드시어괴디아니흥리이다어미닐오디그러
흥면술을비즈리라흥더니그늘에과연거경이
와당에올라절흥고술먹으니라후에원백이병
이등흥니탄식흥여곧오디범거경을못보와흥
이로라흥고이응고죽으니식이숨에원백이불
러닐오디거경아내아모날죽어아모날장수흥

너니 날을 낫디 아니 커든 미쳐오라 식이 섬을 세
 여즉시 돌러 자니 볼셔 발인 흥여 무들 싸해가시
 되관이 아나가 거늘 그어미 관을 어르만 지며 곧
 오디 원백아 무숨기 드리미 잇는 나 흥더니 이 응
 고희술 위 흰물로 울며 오니 니 잇거늘 어미 날 오
 디이 반드시 거경이 로다 과연 거경이와 상여를
 두드리며 곧 오디 흥홀디 어다 원백아 스싱이 길
 이 다르니 일로 조초 영결 흥리 라 식이 인 흥여 관
 을 드리니 관이 이에 나가 거늘 식이 드디 여 더
 무러 어셔 무덤을 일우고 나 모시며 고가 나 라

張裔恤孤 三國蜀



張裔蜀郡人先主以爲巴郡太守少與楊恭友善恭蚤死遺孤未數歲裔迎畱與分屋而居事恭母如母恭之子息長大爲之娶婦買田宅產業使立門戶詩少結金蘭著意長死生雖異義何忘撫孤將母皆如已竟置田莊使主張 友道由來貴不渝張公信義孰能儔世間覆雨翻雲者見此寧無愧汗流

당예는 촉한 때 촉군 사림이라 선취파 군태수를
하이니 당예 저머셔 양공과 벗하 여 도화하 더니
양공이 일즉 죽고 조식이 두어 술도 못되 엿거늘

당예 양공의 가속을 드려다가 집을 논 화살리고
양공의 어미를 섬기되 친어미 못하 며 양공의
조식이 조라거늘 당가 드리고 전히 가산을 사주
어하 여 금문호를 세오게 하다

五倫行實圖
道琮尋屍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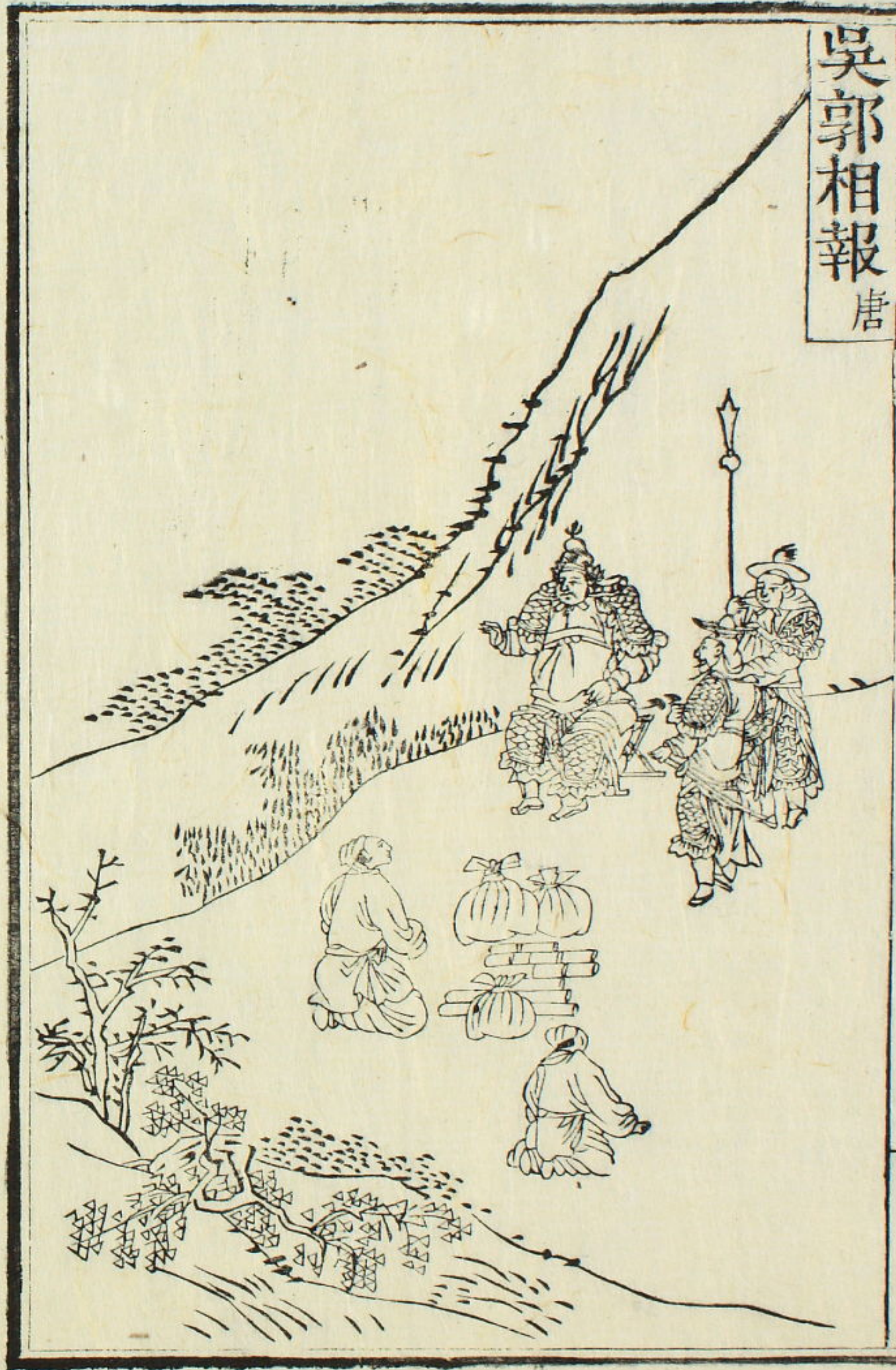
羅道琮蒲州人慷慨尚節義貞觀末上書忤旨徙嶺
表有同斥者死荆襄間臨終泣曰人生有死獨委骨
異壤耶道琮曰吾若還終不使君獨畱此瘞路左去
歲餘遇赦歸方霖潦積水失其殯處道琮慟諸野波
中忽若湓沸者道琮曰若屍在可再沸祝已水復湧
乃得屍負之還鄉

詩天涯同謫共辛酸委骨殊方涕自潛珍重臨終
盟約在將身何忍獨生還 鷄書似與潦相期草
葬江邊失所之一片丹誠天感應波中湓沸豈人
為

나도 종은 당나라 포쥬사람이니 모름이 강개호고 절의를 숭상호터니 정관 당대종대년호라 적의 상소호다가 남군의 뜻을 거스려 녕남에 귀향갓더니 호가지로 귀향간재이셔 형양수의 셔 죽을 제을며 날오디 사람마다 죽음이 잇거니와 내 홀로 남의 사히 썬을 버리랴도 종이 날오디 내 만일 도라가면 口 참내 그 디로 혼자에 잇게 아니호리라호고 길_マ에 못고갓다가 호히 남죽호야 샤를 만나도 라올제 마초와 장마디니 물이 빠히여 무든곳을 일코도 종이 들히셔 울며 찾더니 물결이 흘연

이살_는듯호거늘도 종이 날오디 죽음이 예잇거든다시 살호라호고 비더니 물이 또 솟거늘 죽음을어터 몸소 지고도 라오니라

五倫行實圖
吳郭相報唐



吳保安魏州人與郭仲翔居同里仲翔爲姚州都督李蒙判官哀其窮力薦之表爲掌書記後仲翔被執於蠻必求千緡乃肯贖保安營贖仲翔苦無資乃力居貨十年得緡七百妻子客遂州間關求保安所在困姚州不能進都督楊安居知狀異其故貲以行求保安得之引與語曰子棄家急朋友之患至是乎吾請貸爲貲助子之乏保安大喜卽委緡于蠻得仲翔以歸後仲翔居母喪及服除喟曰吾賴吳公生今親歿可行其志時保安以彭山丞客死妻亦歿喪不克歸仲翔爲服縗經囊其骨徒跣負之歸葬廬墓三年

乃去迎保安子爲娶妻而讓以官

詩投蠻乞救恨家貧力索千縑贖一身負葬服縗

還守墓感恩終報再生人 滔滔盡是翻雲手千

古稀逢信義中感激恩情期必報兩人高操激媮

風

오보안은당나라위주사람이니곽등상으로도더

브리호름에서사다가등상이요주도독니몽

의판관이되어보안의궁박함을불상이너겨니

몽의게힘써천거하여당셔괴벼슬을하여더니

후에등상이남방오랑캐게잡히여김일천필을

밧고노흐리라하거늘보안이속하여내고져호
디감시업스니힘써당스덜하여십년만에김철
빅필을엇고쳐조는호가지로슈주싸히부터여
이셔두로보안의잇는곳을찾다가요주에서몸
이디쳐능히나아가디못하더니도독양안게그
일을알고괴이히너겨위하여보안을찾자어드
니안게청하여닐러올오디그디집을브리고벗
의환란을급히너기미이대도록하냐청권대저
물을내여그디부족하거슬도우리라보안이크
게깃거김을가져오랑캐를주고등상을어더도

라오니 후에 등상이 모상을 만나 삼년을 모친
 탄식하여 곧 오던 내오 공을 힘입어 사 랫는 디라
 이제 눈어 버이 업스니 가히 버릇을 힘히 리라
 고이 새에 보안이 평산승벼슬에셔 죽고그 안히
 도또 혼죽어 능히 리상하여 도라오디 못하니 등
 상이 위하여 복을 남고 죽음을 거두어 지고 도라
 와 장수를 모친 삼년을 슈묘하고 보안의 아들
 을 마저와 당가드리고 벼슬을 사양하여 주니라

李勉還金 唐



李勉京兆人少貧客梁宋與諸生共逆旅諸生疾且死出白金曰左右無知者幸君以此爲我葬餘則君自取之勉許諾既葬密置餘金棺下後其家謁勉共啓墓出金付之

詩逆旅同棲幾苦辛臨終訣語忍堪聞死生付托無相負高義千秋孰似君 葬君餘是爲吾物若取而歸是負心密取餘金棺下置此心皎皎彼蒼臨

니면은당나라경도사람이니저은제가난후여
냥송사의가손이되어선비들과후유인에잇터

니후선비병드러죽을제흰금을내어면을주어
곧오디것히사람이모르니그디이금으로내
장소를더내고남거든그디가지라니면이허락
하고장소를막태매나쁜금을만이관아리녀
히더니후에그집사람이면을가보니면이후가
지로무덤을열고금을내여주니라

徐晦不負唐



徐晦少為楊憑所善憑得罪貶臨賀尉姻友憚累無
往候者獨晦至藍田慰餞宰相權德輿謂曰君送臨
賀誠厚無乃為累乎晦曰方布衣時臨賀知我今忍
遽棄耶有如公異時為奸邪譖斥又可爾乎德輿歎
其直稱之朝李夷簡遽表為監察御史晦過謝問所
以舉之之由夷簡曰君不負楊臨賀肯負國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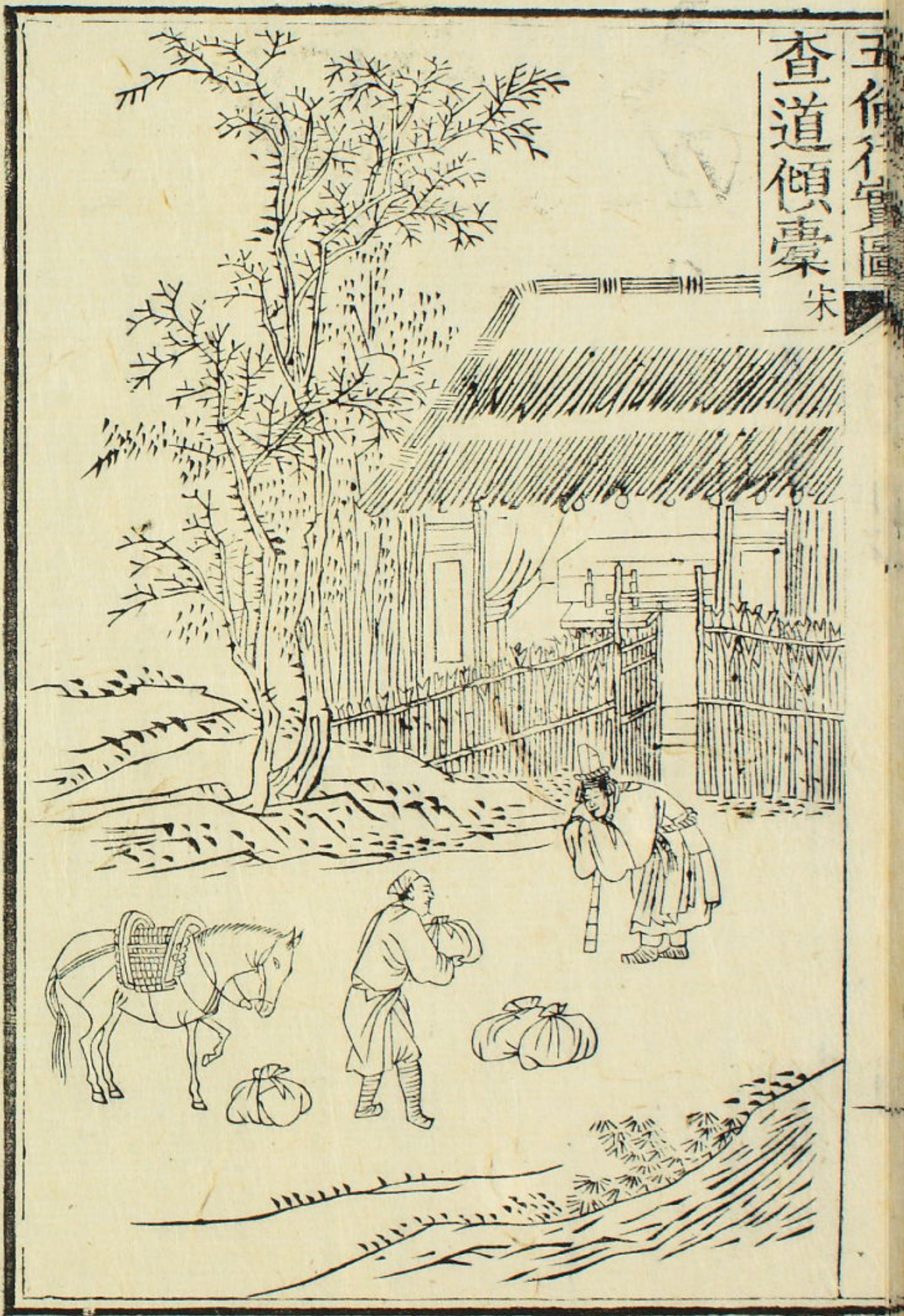
詩自許相知舊布衣那堪遠謫送將歸一身有累
何會計送至藍田不忍離 相公推薦應非苟稱
職終為御史官不負相知寧負國高名一日上朝
端

서회는당나라사람이니 벗양빙이 죄에 걸터내
티여넘하위벼슬로가거늘겨레와벗들이년루
흘가저허가보리업더니서회흘로가전송흔대
지상권덕예닐오디그디넘하를전송흔니진실
로후후거니와년루흥미업스라서회곧오디내
포의쇄브터넘하와친흔니이제차마엇디벗리
리오만일공이이후에간인의게모함흔배되면
또흔그리아니라덕예그고든줄을도형에일크
르니나이간이서회를천거흔여감찰어스를흔
이니회가서샤레흔고천거흔연고를무른대이

간이닐오디그디양넘하를저벗리디아니흔니
엇디나라흘저벗리랴흔더라

五倫行實圖
查道傾囊

宋



查道休寧人初赴舉貧不能上道親族哀錢三萬遺
之道出滑臺過父友呂翁家翁喪貧窶無以葬其母
兄將鬻女以襄事道傾囊中錢悉與之又嫁其女

詩義重財輕見最明貧難赴選亦無營却將親戚
哀錢囊都爲先人執友傾 元振今亡可奈何惟
謀鬻女不謀他囊錢傾與供襄事又助其婚濟一
家

사도논송나라휴녕사람이니처음에과거보라
갈제가난후여길을나더못하더니겨레들이돈
삼만을모도와주니헛헛여할디사흐로디날시

아비벗녀옹의집에드러가니녀옹의상스애가
난응여장스름못홀시장춧그쌀을푸라디내려
흐거늘사되형장을기우려그돈을다주고그쌀
을셔방마쳐보네니라

韓李更僕 宋



韓億雍丘人李若谷徐州人未第時皆貧同試京師
每出謁更為僕李先登第授長社縣主簿赴官自控
妻驢億為負一箱將至縣三十里李謂韓曰恐縣吏
來箱中只有錢六百以其半遺韓相持大哭別去後
舉韓亦登第仕皆至參政為婚姻不絕

詩二子同時舉上都何嫌出謁迭為奴由來貧賤
交尤密榮辱升沉兩不渝 自控妻驢赴縣時韓
生猶復負箱隨分錢道上相持哭從此連姻義莫

虧

한억은송나라옹구사람이오니약곡은셔쥬사

룸이니급테못하야신제가난하야흔가지로과
거보라셔올갈시서로종이되더니약곡이몬셔
급테하야장사사에원하야갈제그안히튼나귀
견마를잡고한억은짐지고가더니고을삼십리
를못밧처가셔약곡이한억드려닐오디고을아
전이올가저헤라하고짐에다만돈육백이잇거
늘반을느화한억을주고서로붓드러크게울고
가더니훗과거의한억이또급테하야들히흔가
지로벼슬이지상에니르고서로혼인하야스디
아니하더라

五倫行實圖
純仁麥舟 宋



范純仁仲淹子仲淹在睢陽純仁到姑蘇搬麥五百斛純仁時尙少旣還舟次丹陽見石曼卿問寄此久何也曼卿曰兩月矣三喪在淺土欲葬而北歸無可與謀者純仁以所載麥舟付之單騎到家拜起侍立良久仲淹曰東吳見故舊乎曰曼卿爲三喪未舉方畱滯丹陽時無郭元振無可告者仲淹曰何不以麥舟與之純仁曰付之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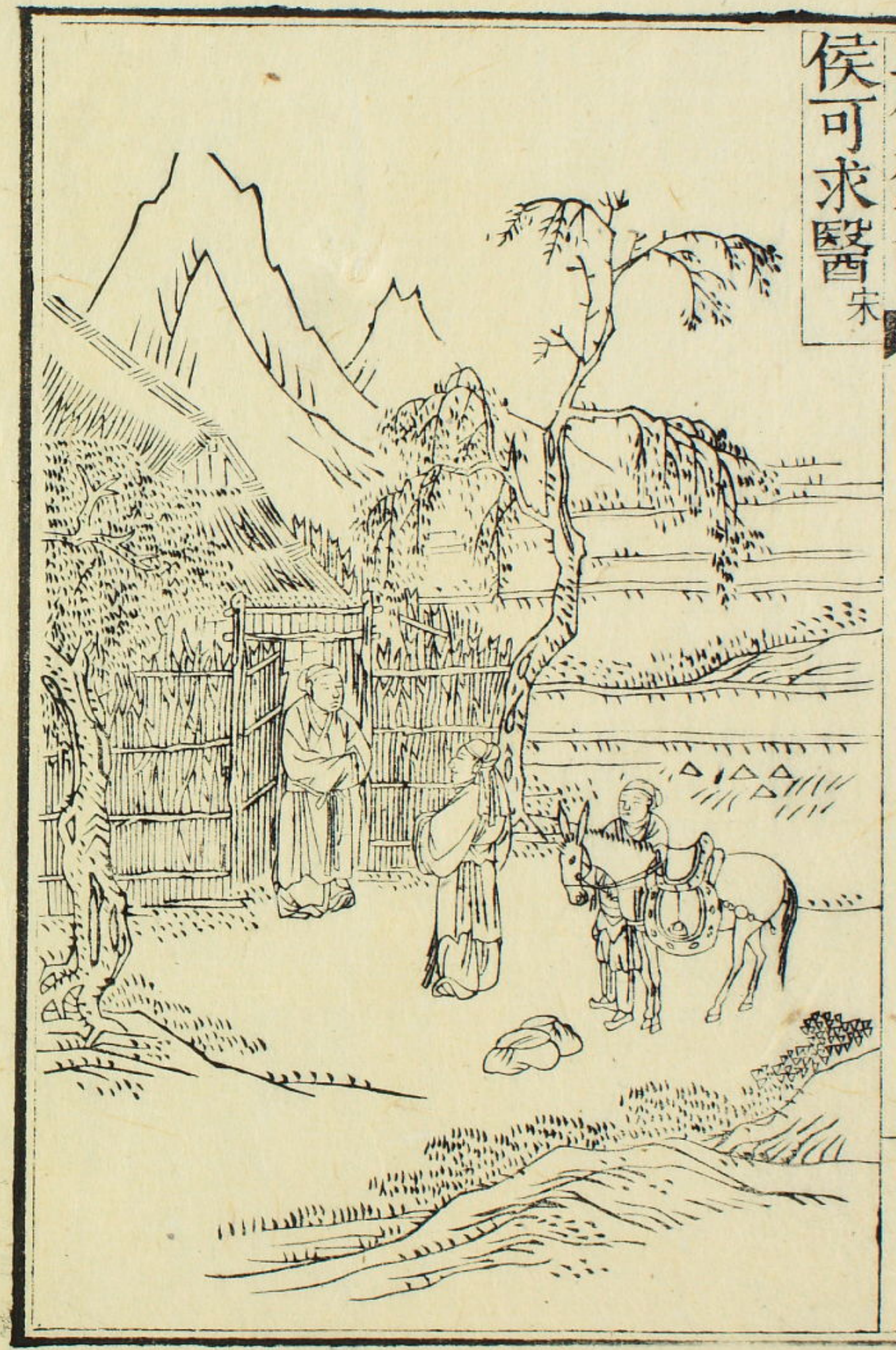
詩誰教小范往姑蘇大范親提汗血駒搬到義聲輪老子麥舟五百視鎚銖歸來侍立喜津津不問歸裝問故人倘不麥舟付襄事茲行終是負嚴

親

범순인은 송나라 사람이니 중엄의 아들이라 중
엄이 순인으로 하여곰 고소하려 하니 오백석
을운전하여 오라 하니 순인이 이새에 나히 오히
려져 멧논디라도 라을제 단양사히 다드라 석만
경을 보고 무르되 엿디여 귀오래 잇는 노만경이
닐오디 머 무런디 두들이 로디 세상 스를 빈 소하
여 두고 장스 하고 가려 호디 더 브러 의론 하리 업
세라 순인이 그 보리 실은 비물 다 주고 단귀로 집
의 도라와 아 비게 보고 되셔 섰 더 니 중엄이 곧 오

디 동오에 서 넷 벗을 본다 순인이 곧 오디 만경이
세상 스를 장스 하디 못하 여 단양에 서 머 머물며 이
제 막 원던 마튼 사람이 업스 니 고홀 디 업세라 하
더 이 다 중엄이 곧 오디 엿 디 보리 비물 아 니 준다
순인이 슬 오디 볼 셔 주 엿 는 이 다 하 더 라

王倫行實圖
侯可求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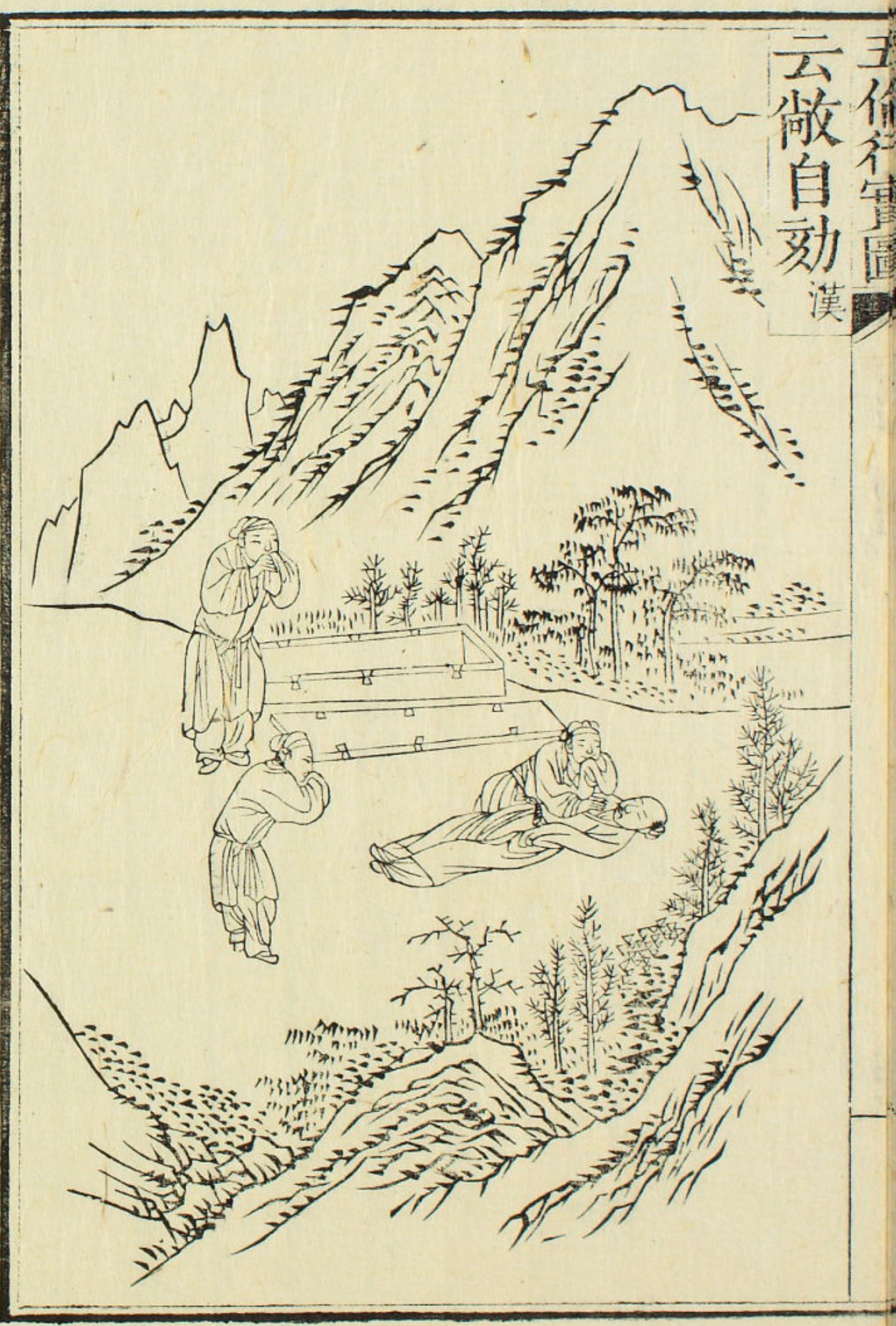
侯可華州人為華原主簿少與田顏為友顏病重千里為求醫未歸而顏死目不瞑人曰其待侯君乎且斂而可至拊之乃瞑顏無子不克葬可辛勤百營鬻衣相役卒葬之方天寒單衣以居有饋白金者顧顏之妹處室舉以佐其奩具一日自遠歸家以寔告適友人郭行扣門曰吾父病醫邀錢百千賣吾廬而不售可惻然計橐中裝略當其數盡與之關中稱為賢詩辛勤千里遠求醫生死那知隔此時張曰瞑時靈不昧鬻衣空相送終儀 郭生罄橐還資急顏妹遺金更顧窮不負一心生死際華原高義薄層

空

후가는송나라화주사람이라화원원을흥니져
문제턴안과사피엿더니년안이병이동흥거늘
천리에가의원을구흥여도라오디못흥여서턴
안이죽어눈을롬디아니커늘사람이닐오디후
가롤기드려그러흥미냐장춧념흥매후개니르
러손으로안지니눈을롬으니라년안이주식이
업서장스름못흥여흥거늘후개신근히빅가지
로경영흥여오솔포라역스름도와미침내장스
흥엿더니그새날이치운디라후개훗옷납고잇

더니흰금을주느니잇거늘년안의누의쳐녀로
잇는줄알고그금을주어혼구를도으니라흥는
먼리나갓나가도라오니집의셔군팸흥믈고흥
더니마초아벗곽흥이와문을두드려닐오디내
아비병드러의원에게청흥니돈을만히달라호
디내집을포라도모주라리로다흥머후개불샹
이너거흥장에남은거솔혜아리니거의그수를
당흥디라다주니관동사람이다그어덜믈일코
더라

五倫行實圖
云敞自効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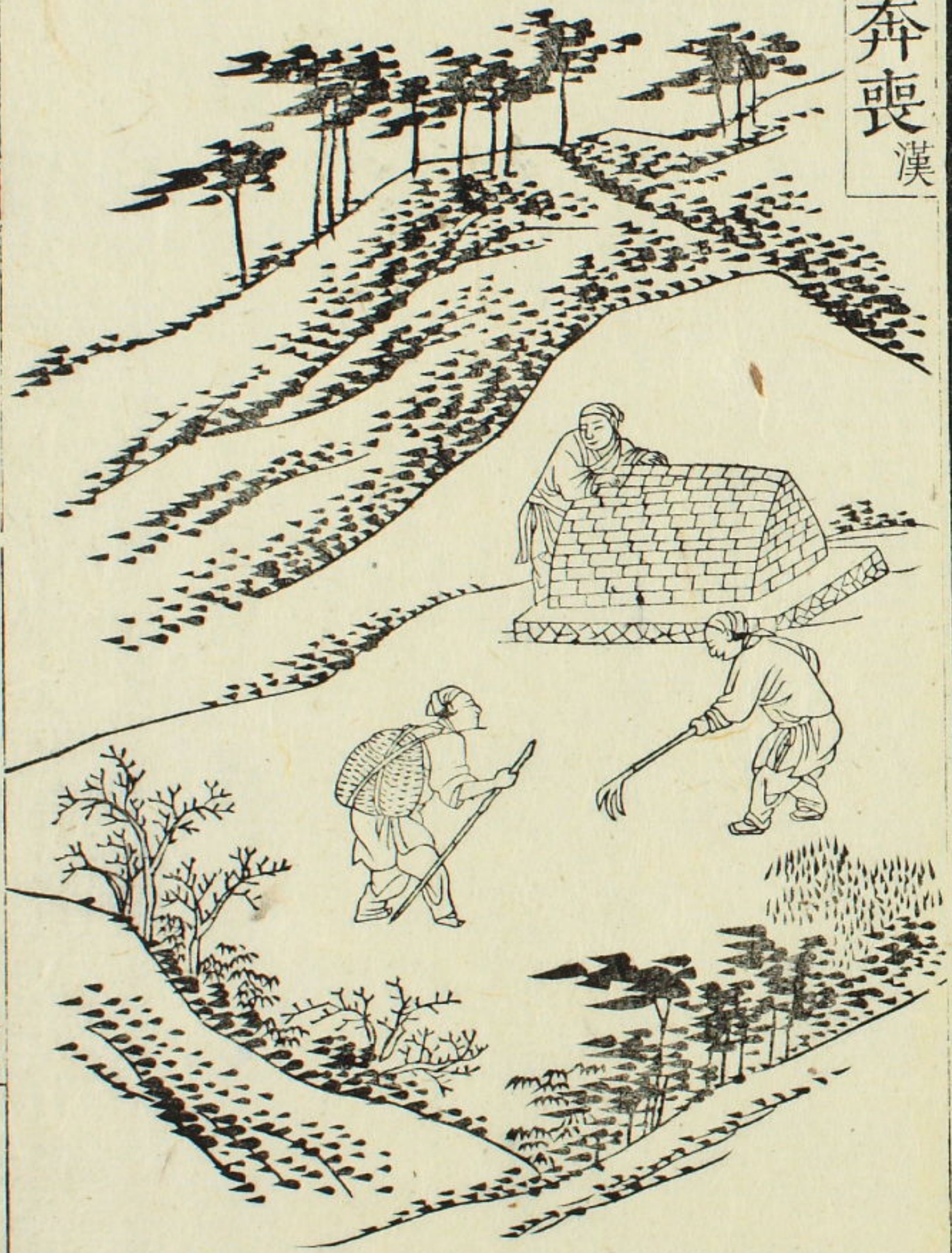


云敞平陵人師事同縣吳章平帝時章為博士王莽
秉政章忤莽坐腰斬當是時章弟子千餘人莽以為
惡黨皆當禁錮不得仕宦乃盡更名他師敞時為大
司徒掾自効吳章弟子收抱章屍歸棺斂葬之京師
稱焉車騎將軍王舜高其節義薦為中郎諫大夫
詩吳章忤莽坐腰刑畏禁門人盡更名獨有先生
能自効斂藏骸骨答恩情 式穀成人誨在師事
三如一分當宜先生一舉扶名教此義須令學子
知

은창은한나라평능사름이니흐고을오장을스

승으로 섬기더니 왕망이 오장을 죽이고 오장의
 데 주천여인을 흘랑이라 하여 다금고 하여 벼슬
 못하게 하니 다 다른 디 비화노라 일커로 디운창
 이 이때 대소도 연벼슬이라 스스로 장의 데 지로
 라 하고 장의 죽음을 거두어 넘습혀 여장소 하니
 셔올사름이 다 일커라 왕순이 그 절의 물 돕히
 너겨 증낭간래우 벼슬을 응이니라

桓榮奔喪 漢



桓榮沛郡人少學長安習歐陽尚書事博士九江朱
普貧窶無資常客傭以自給精力不倦十五年不窺
家園會普卒榮奔喪九江負土成墳因畱教授徒衆
數百人

詩生三事一理斯存世乏隆儒孰扣昏桓氏也能
知此義奔喪負土報前恩 食貧都下習書經十
五年來力致精尊寵竟蒙稽古力何曾一字忘先
生

환영은한나라패군사름이니저문제셔올가비
화구강의잇는쥬보를섬겨상셔를비호다가가

난흥여저상홀길이업스니미양품프라니우고
힘베게으르디아니흥야심오년을집동산을보
디아니흥터라마초아쥬외죽거늘환영이분상
흥여구강의가흙을저무덤을일우고인흥여머
무러테저수빅을마르치니라

牽招歛殯

三國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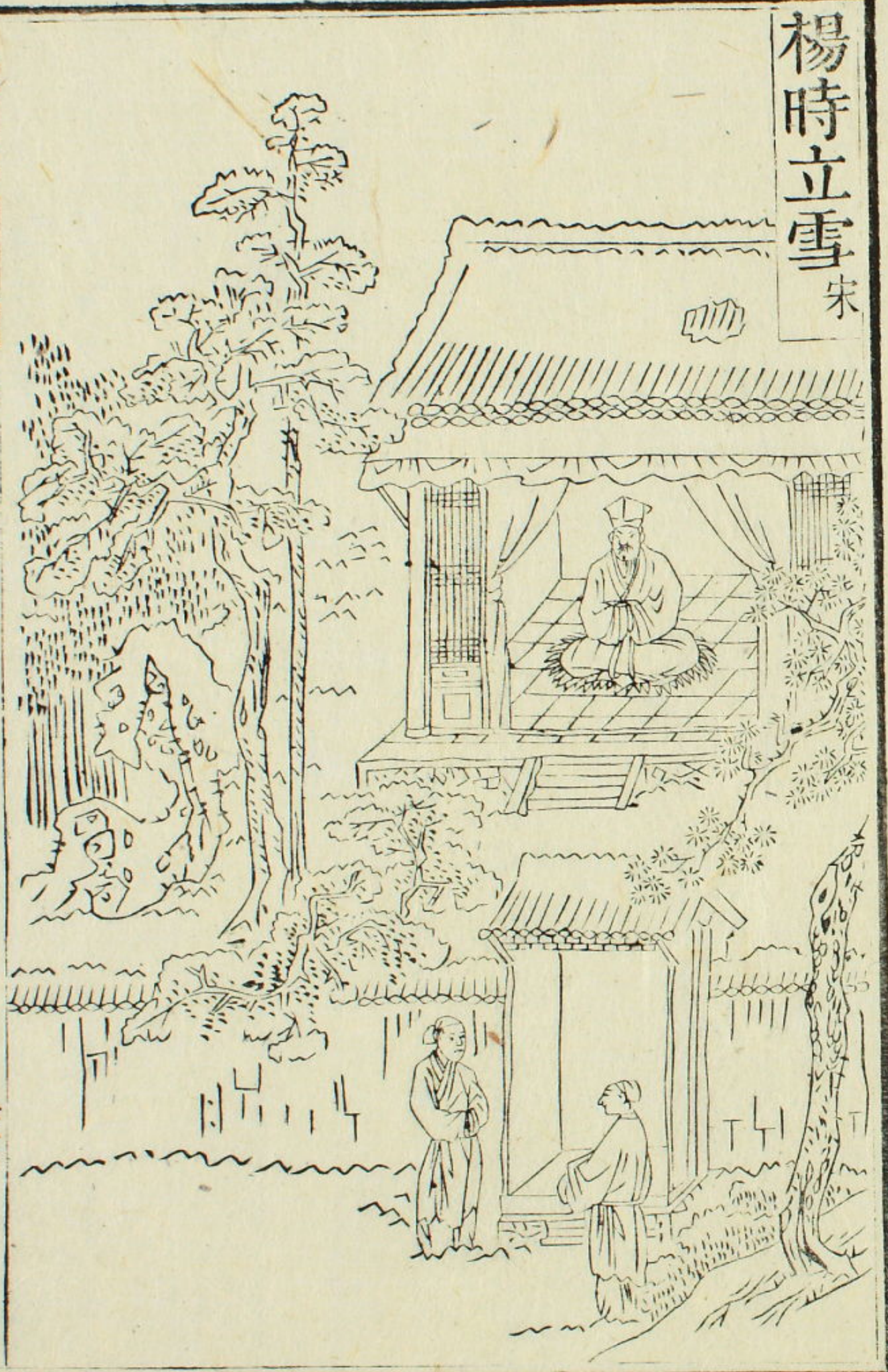
牽招觀津人年十餘歲詣同縣樂隱受學後隱爲車
 騎將軍何苗長史招隨卒業值京都亂苗隱見害招
 與隱門生史路等觸蹈鋒刃共殯歛隱屍送喪還歸
 道遇寇抄路等皆悉散走賊欲斫棺取釘招垂淚請
 免賊義之乃釋而去由此著名

詩當年從學在髫稚遇亂師亡最可悲冒刃歛屍
 還舊里蒼皇終不負吾師 道逢頑寇亂干戈史
 路先奔獨奈何一寸丹誠終感賊斫棺凶禍不能
 加

견 초는 위나라 관진 사람이 나히 십여 세에 호

고을잇는악은의게가비호더니후에악은이장
 군하묘의막해되여가거늘견최조치가크침내
 비호러니경성에난이니러나하묘와악은이다
 죽거늘견최악은의테스스로등으로러브러칼
 날을무릅쓰고드러가악은의죽음을념습히고
 발인응여도라오다가도적을만나다른테스들
 이다드라나니도적이관을써쳐모슬싸히려하
 거늘최을고말린디도적이착히너겨노코가니
 일로말미암아일홈이나타나니라

楊時立雪 宋



五俗行實圖
楊時南劍人得明道之傳而歸及聞其卒設位哭寢
門以書訃告同學者後與游酢同見伊川伊川瞑目
而坐二子侍立既覺謂曰賢輩尚在此乎今既晚且
休矣及出門外雪深一尺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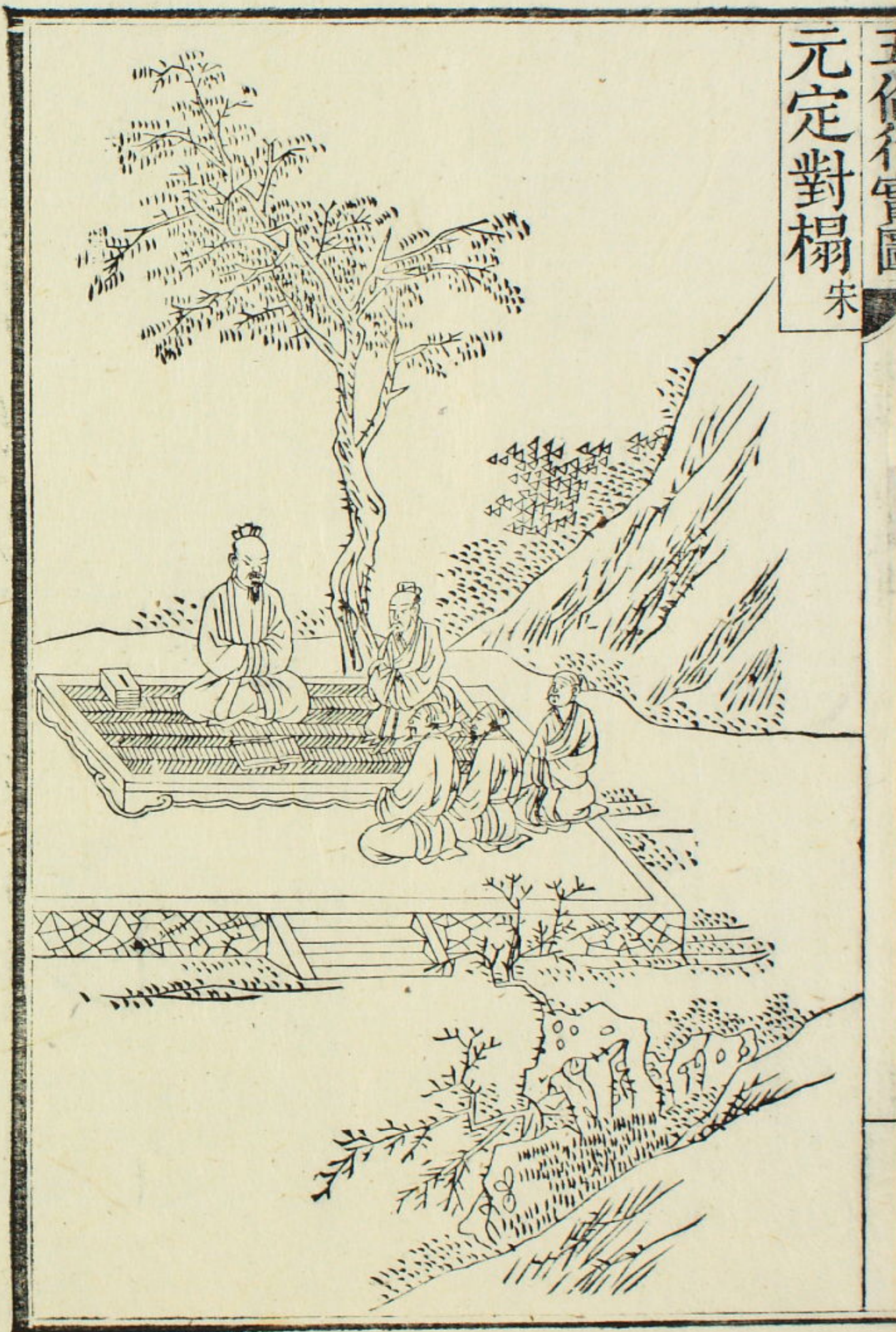
詩學道歸來道已東山顏梁毀恨難窮寢門慟擗
知天喪爲訃諸生共哭從 吾師之弟亦吾師却
與游君共事之偶值先生瞑目坐雪深一膝不知
疲

양시논송나라남감사름이니명도선성의도호
을비화도라왔다가선성의부음을듣고침실문

받기허위톨베프러울고호가지로비호던사름
의게통부하니라후에유작으로터브리이천선
성을뵈오니이천선성이눈을감으시고안젓거
늘두사름이되셔섯더니선성이셔치고닐오시
디그디네그저잇던다오늘이이의져므러시니
가쉬라하시거늘문밖이나니눈이빠혀김희호
자히러라

元定對榻

宋



蔡元定建陽人父發博覽羣書以程氏語錄邵氏經世書張氏正蒙授元定曰此孔孟正脉也元定深通其義既長辨析益精登西山絕頂忍飢食齋讀書聞朱子名往師之朱子叩其學大驚曰此吾老友也不當在弟子列遂與對榻講論諸經奧義每至夜分四方來學者必俾先從元定質正焉

詩蔡公問學自家庭虛已尋師要道成勤苦西山通正脉紫陽初見亦應驚力學精思素性存青年探討見真源晦庵叩學難為友師道何慚一世尊

五倫在實圖
 채원형은 송나라 건양사림이니 아비발이 글을
 만히 보와 정시어 록과 쇼시경세석와 당시 형몽
다척일
 흠이라으로 원형을 마르쳐 온 오디이 논공조망조
 의형막이니라 원형이 그 글뵈을 김히 아라조라
 매문의 룰분변하고 푸러 보미터 옥정하야셔 산
 절정의 을나 주리물츠마 누를을 먹고 글넘더니
 쥬조일흠을듯고 가스승하니 쥬지 원형의 비흔
 거슬 무러 보시고 크게 놀나 곧은 샤디이 논배늘
 은 벗이 오테 조항년의 두디 못하리 로다 하시고
 탐을 디하 여안자 경석의 기본은 뵈을 강논하 실시

미양밤등사디니르고 스방의셔와 비호는 사름
 은반드시하 여곰몬져 원형을 조차질형하 게하
 시더라

太宗癸未置鑄字所以詩書左傳爲字本鑄銅
 字十萬 世宗甲寅以孝順事實爲善陰隲爲
 字本鑄二十萬字印行小學三綱行實 英宗
 壬辰我 聖上在春邸命以甲寅字爲本鑄十
 五萬字藏于外閣元年丁酉用前本又鑄十五
 萬字藏于內閣甲寅並移藏于昌慶宮之舊弘
 文館命之曰鑄字所又用字典字木刻大小三

十二萬餘字賜名生生字粵明年乙卯爲印整理儀軌以生生字爲本鑄如本字曰整理字丁巳小學五倫行實鄉禮合編編成命小學鄉禮合編用丁酉字五倫行實用整理字並自鑄字所印頒每印一書必載鑄字事實於卷端以識其廣惠壽傳之義而在是書尤切蓋字本也編名也印書之所也皆追述 兩聖朝徽規若合符契也

五倫行實圖卷第五

